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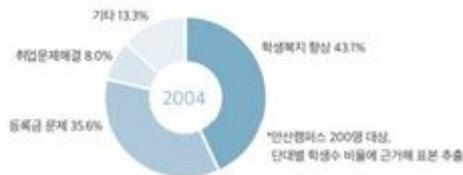
# ERICA40년사/2000년대 학생문화활동

ERICA40년사 중 2000년대 학생문화활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 2000년대 학생 의식의 가장 큰 변화를 꼽아보면 ‘탈 정치화’를 들 수 있다. 2000년대는 바야흐로 군사정권이 붕괴되고 민주화가 꽃을 피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개성이 더욱 존중되는 시대에 대학생들은 정치적인 구호에 이전처럼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으며,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 자치조직은 정치성 보다는 안산캠퍼스의 위상을 고취시키고, 학내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그 존재의 목적을 두게 되었다.

## 2000년대 이후 학생의식의 변화

• 2004년 실시한 ‘학생회에 최우선으로 바라는 사안은 무엇인가’ 설문조사 결과



- 학생들의 의식 변화의 정도는 2005학년도 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우리 대학 언론기관 중 하나인 <위클리 한양>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당시 설문조사는 서울캠퍼스 250명, 안산캠퍼스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학생회에 최우선으로 바라는 사안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안산캠퍼스의 경우 학생복지 향상(43.1%), 등록금 문제(35.6%), 취업문제 해결(8.0%)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캠퍼스 역시 안산캠퍼스와 비슷하게 학생복지 향상(43.1%), 등록금 문제(34.9%), 대학문화 발달(8.8%) 순으로 나타났다. 양 캠퍼스 학생의 약 80%가 학생복지와 등록금 문제를 학생회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아 80~90년대 학생회가 사회참여와 현실비판에 대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대학 뿐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학생들은 이제 공동체에 대한 고민보다 개인과 밀접한 사안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우리 대학은 2002년도 제20대 총학생회에서 첫 비운동권 학생회가 당선(소리없는 99%의 대반란\_윤오일, 유재현)되었는데, 2002년도는 서울, 안산 양 캠퍼스 모두 비운동권이 당선되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한국 학생운동의 메카를 자임해 온 한양대로서는 당시에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았다. 또한 2002년도 이후 2006년도에도 열정PLUS가 비운동권으로 당선된 바 있다.

■ 2000년 이후 안산캠퍼스 총학생회 현황

대	년도	총학생회	특징
18대	2000년	김동 2000 (김현철, 정기윤)	7,938명의 유권자 중 4,523명이 투표에 참여해 1,739표를 얻어 56.99%의 득표율로 당선
19대	2001년	9천의 힘찬 도약 팀다 2000+1 (이두형, 정연욱)	총 투표율 53%를 기록하였으며 이두형 정연욱 후보가 51.4%의 득표율로 당선
20대	2002년	소리없는 99%의 대안란(소란) (윤오일, 유재현)	56.99% 비교적 높은 투표율 기록 소란은 2,773표를 획득하였으며 첫 비운동권 학생회 당선으로 주목받음
21대	2003년	9000의 거침없는 물결타기 안/산/파/란 (이화택, 한미현)	총 8,649명의 유권자 가운데 5,013명이 투표에 참여해 57.96%의 투표율을 기록 '안/산/파/란'은 총 3,062표를 얻어 63.08%의 득표율을 기록
22대	2004년	Fly 2004 (성중현, 조한나)	단독 선거로 진행되었으며 84.9%의 지지율을 얻음
23대	2005년	꿈꾸는 우리 세상을 쓰다 hyQ (서동규, 함영아)	두드림Dream(정승현, 이용승)의 사퇴로 찬반투표 후 당선
24대	2006년	열정PLUS (권병창, 홍성재)	52.92%의 지지율(2,347표 획득) 2002년 이후 다시 한 번 비운동권 학생회가 당선
25대	2007년	희망을 향한 힘찬 발걸음! 열정PLUS (이영준, 김종화)	52.7% 투표율 중 2,446표를 얻어 총 득표율 54.3%로 2006년에 이어 연속으로 열정PLUS가 당선
26대	2008년	파워포인트 (김도희, 송승진)	우리 대학 최초로 여학우가 총학생회장에게 당선
27대	2009년	Power Action (황정욱, 산상수)	69.24%의 찬성율로 당선(3,129표 획득)

# 2000년대 안산캠퍼스의 축제

■ 2001년 별망제 행사 관련 기사

**'학우들과 동고동락' 안산 별망제 열려  
장예우 초청행사, 민속극 등 다양한 행사로 일궈낸 '작은 성공'**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안산캠퍼스에서는 '2001 예국한양 자주안산 별망제'가 열렸다. 이번 별망제는 동고동락(同苦同樂)이라는 주제 아래 모든 학우들이 고동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준비과정에서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비가 내리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첫날을 제외하고는 예년 때 비해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율이 높았다.

21일 민주광장 앞에 설치된 중앙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번 별망제는 학교 곳곳에서 대학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총학생회에서는 동고동락 콘서트대, 동고동락 운동회와 문화제 '여제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 등의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여 학우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각 단대 및 중앙 음악동아리들의 공연과 댄스동아리, 합창동아리의 공연 그리고 열화동아리와 문화동아리, 인권동아리가 함께 준비한 동고동락 열화제 등 여러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중 열화동아리의 '소나기'에서 준비한 열화 '엑소시스트 무사제판'은 학우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24일 폐막제 후 민주광장에서 개그맨 윤경수의 사회로 진행된 '키 레스티벌' 본선은 숨어있는 한양인의 끼와 재능을 엿볼 수 있는 흥겨운 거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장훈과 김경호가 초청가수로 출연하여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이번 '키 레스티벌'의 대상은 20개의 상대모사용 모형으로 행사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학우들을 열광하게 만든 국제문화대학 영어언어학부 이재원 군이 수상했다. 이번 별망제도 새로운 참여율과 주제 등의 소재지향적인 행태들이 축제의 주를 이루는 등 개천재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은 현재의 대학축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적인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번 축제의 작은 성공을 만들어 낸 별망 행사들이 있었다.

첫날 총학생회와 사회봉사단의 주최로 열린 장예우 초청행사와 문화인류학과가 주최한 민속극 행사, 그리고 둘째날 열린 관동문화센터의 마당극 '신묘비리' 초청공연이 바로 그것. 일산에 위치한 장예우 교육기관 '명휘' 학생들과 일한 학우들이 함께 즐기고 어울린 이번 행사는 지역주변, 소외받은 이웃과 함께 하는 대학문화의 또 다른 지향점을 보여준 의미있는 행사였다. 또한 할어싱 대동국을 재현한 민속극 행사는 전통의 소중함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자리였으며, 마당극 '신묘비리'는 화해되고 있는 우리 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소중한 자리였다. 한편 둘째날 열린 생활관 오콘하우스에서는 오콘하우스가 요제를 비롯, 생활관생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이번 별, 학구적인 별 선별대회를 열어 예년보다 다채롭고 이색적인 행사가 진행되었다.

요즘 대학축제에 대해 알뜰적이고 소재지향적인 행태만이 관을 치는 무의미한 행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현실에서 이번 별망제는 비록 완벽한 성공은 이루지 못했지만 의미있는 별망 행사들로 인해 작은 성공을 이루어냈으며 앞으로 대학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축제문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학우들의 노력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모든 학우들이 함께할 수 있는 더욱 뜻깊고 발전된 대학축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위클리 한양 2001년 6월-

우리 대학 축제는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별망제(1학기 개최), 동아리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밀물제(2학기 개최)로 나뉘는데, 2000년대 들어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축제에 대한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율이다. 이는 학생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소속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취업과 관련한 활동에 보다 집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대학축제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개인의 개성과 끼를 분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었다. 또한 총여학생회를 주축으로 여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2001년 당시 별망제에 관해 실렸던 <위클리 한양>의 기사와 밀물제 행사표를 통해 당시의 축제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 2001년 알뜰제 행사표

	24일	25일	26일	27일
1시		개막제		
2시		체육분과 연합공연 (해동검도, 검우회, 태권도, 바순)	활씨름대회	2시 30분부터 전체학생대표자 공연별을 올려라 4시 30분까지
3시	통일염원 한양인 자전거 대행진	동아리인 한마당 (동아리들의 별난 운동회) ~4시 30분까지	30:30 스포탈출대작전	폐막제
4시	길놀이 행사	동계구름 파랑소꿉 손앗사랑회 아유림	초청공연 서울예술대학 개그클럽 안산예술단 공연 ~6시 30분까지	탈춤 공연 (강령탈춤)
5시	전야제 행사 푸터스 공연			
6시	한양우드스탁 초청	DOH 공연	6시 30분부터 알뜰가요제 (총 12팀 경연) 이재수공연 심사발표	HEMA공연 7시 30분부터 대동놀이
7시	지하드공연	Feel so good ~7시 30분까지		
8시	올라이즈밴드공연			
9시 이후	여성영화제	통일문화축제 ~7시 30분 이후		